불란서문단(佛蘭西文壇)

白大鎭

불란서시게는 표상파(表象派)이리 그 형식의 방면애 향히셔도 큰혁신이 이러낫셧습니다 당시까지의 시는 거의다 셔슐뎍 표현(敍述的表現)으로써 직접 품은바를 읊엇던바 이에 상증(象徵)으로써 암시(暗示)ᄒᆞ는 의의뎍 쥬장(意義的主張)이 싱기엇습니다 상증이라 ᄒᆞᆷ은 분히ᄒᆞ기어려운 죵합일치의 상틱예잇는바 엇던 관념을일흠이니엇더ᄒᆞᆫ현찰가(賢察家)이던지 명빅히말ᄒᆞ기어려운바 진리의 정슈(精髓)를 가장만히 머금어잇는 그 독창(獨創)인상을 은률뎍암유(音律的暗喩)로써 발표하는것됨을 일커름이올시다 서슐뎍으로된시는 이와갓치 동감ᄒᆞ라고 독자에갸디어드나 암시뎍(暗示的)으로된시는 적극뎍 틱도를 취치아니ᄒᆞ고 써 오직 안전에 엇던 무엇을 방불케ᄒᆞᆷ니다

죵전의 시의법측은 차동복잡ᄒᆞᆫ 의상(意想)을 용납ᄒᆞᆷ에 너무 좁앗습니다 얘를드러말ᄒᆞ건디 랑만파(浪漫派) 파르낫ᄉᆡ파ㄴ 압운(押韻) 청각(聽覺)만 위ᄒᆞ엿고 ᄯᅩ는의미상으로본 연속ᄒᆞᆫ말을 다음구에 부치엇습니다 이와갓흔 유희뎍조탁(遊戱的彫琢)이야말로 근본뎍으로 대의를 틀니게ᄒᆞᆫ것이라 ᄒᆞ겟습니다 말미암아 시형의 긔체에디ᄒᆞ야 표상파는삼죵의 슈법을 이리키엇습니다 스테판말라르메(Mallarmé)는 완곡류려(婉曲流麗)의 극치를 구ᄒᆞ기위ᄒᆞ야 ××××는쟈와 시구를 다루고 ᄯᅩ다렷고 베르레인(Verlaine)이며 림버우(Rimbaud)는 시구의제지를 파ᄒᆞ엿다 곳 전쟈는 유염(幽艶)ᄒᆞᆫ 곡션(曲線)의 률격(律格)을 뎐ᄒᆞ엿고 후쟈는 신×뎍(神×的) 비약뎍(飛躍的)인 직선(直線)의 률격을 뎐ᄒᆞ엿습니다 여러복잡ᄒᆞᆫ 표상파를 ᄭᅳᆫ어버린것은 자유시(自由詩)의 긔인(旗印)이올시다 제각금 자긔의 모델(model)에 부합되지 아니ᄒᆞ는 긔성(個性)의 인상을 읊은과동시에 이에 맏는바 각자의표현법을구ᄒᆞ엿나니 곳 긔억식인 시행의 쟤국을 돌파ᄒᆞ고 제각금 자긔의 시풍을 슈립(樹立)ᄒᆞ엿습니다 곳 단슌무미ᄒᆞᆫ 뎐통뎍 시법에 허미지아니ᄒᆞ고 제각금 ᄌᆞ연으로 도라갓습니다

이에 千八百三十年의 랑만파이리 무릇 륙십년동안 뎐성을 지속ᄒᆞ던 대국식규범이 파르낫스대국에이르러 절뎡(絶頂)에 달ᄒᆞ엿다가 상증쥬의의파괴운동으로말미암아 자유시의 전셩을보개되엇습니다 곳 이에디ᄒᆞᆫ 공식뎍 자유사상이 확실히 세워지엇습니다[1)]

---

1) 白大鎭, “最近의 泰西文壇 : 불란서문단(佛蘭西文壇),” 「泰西文藝新報」, 제9호(1918. 11)